

일제강점기 소설에 나타난 국민과 민족 너머의 사유

- 김광주의 「북평서 온 ‘령감’」과 김사량의 「지기미」를 중심으로 -

모지현 (부산대)

1. 들어가며

김광주의 「북평서 온 ‘령감’」(1936)과 김사량의 「지기미」(1941)에 나타난 국민국가의 질서에 포섭되지 않은 디아스포라적 시선을 확보해 보고자 한다. 두 소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중국이라는 타지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조선인 디아스포라일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 내부로부터조차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인물을 조망하면서 제 몫을 잃은 자들이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신동아』 1936년 2월호



『삼천리』 1941년 4월호

2. 경계의 공간과 계층의 분화

김광주의 「북평서 온 ‘령감’」에 나타난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 디아스포라들의 공간은 법적·정치적 권리로부터 배제된 경계의 공간이자, 또 다른 계층화로 인해 민족 공동체 내부로부터도 배제되는 조선인이 생산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때 령감은 상해뿐만 아니라 중국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다양한 인종적 차별과 폭력, 민족 공동체 내부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호모 사케르로서 존재한다.

한편, 김사량의 「지기미」에서 조선인 이주노동자들의 거주지는 서로 돕고 연대하는 민족 공동체의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나이 육십의 ‘아편쟁이’이자 ‘나’의 유일한 동무인 지기미는 조선인이면서도 민족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조선인 디아스포라들의 공간은 정치적인 ‘삶’이 제거되어 주권권력에 의해 마음대로 살해될 수 있는 호모 사케르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경계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두 소설은 령감과 지기미처럼 경계의 공간에서 조선인들에 의해 이중의 배제를 겪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민족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계층화 현상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공동체의 한계와 민족 공동체의 한계를 동시에 가시화하는 공간을 구축한다.

3. 배제된 자의 응답받지 못하는 돌봄

대학생의 발광 사건 이후 지기미는 조선인들을 향한 돌봄을 위해 ‘모노호시대 위’라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한다. 하지만 돌봄을 통해 민족 공동체 내부에 속하고자 했던 지기미는 타자들의 무응답으로 인해 다시 한 번 공동체 바깥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그의 응답받지 못하는 돌봄은 국가적 층위의 ‘포섭/배제’ 구도뿐만 아니라 민족적 층위의 ‘포섭/배제’ 구도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북평서 온 ‘령감’」에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돌봄은 1. 령감이 아내에게 수행했던 가족을 향한 돌봄, 2. 타자를 향한 돌봄으로, ‘나’가 령감에게 수행하는 돌봄이자 령감이 다른 조선인들에게 수행하는 돌봄이다. 여기서 령감이 수행하는 돌봄 역시 지기미처럼 응답받지 못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넘어 민족 공동체 윤리 기반 자체에도 의문을 품도록 만든다.

결론적으로, 두 소설이 국가적·민족적으로 배제된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를 통해 국가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의 한계를 가시화하며, 일제의 식민지배 아래 형성된 국민과 민족의 이분법적 인식틀에서 탈주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나가며

근대 주권권력이 ‘포섭/배제’의 원리를 기반으로 생명 정치를 통해 벌거벗은 생명을 국민으로 포섭하고 또 배제함으로써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했다면, 민족 공동체 역시 동일성의 논리를 기반으로 개인을 단일한 정체성 속에 포섭하며 유지되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에서 두 소설은 ‘령감’과 ‘지기미’라는 난민화된 인물을 통하여, 그리고 이들이 민족 공동체에 ‘포함’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돌봄’을 통하여 국민과 민족 사이 양자택일해야 했던 식민주의 담론에서 벗어나 기존의 공동체가 ‘타자화’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는 것 자체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국민과 민족이라는 기존의 공동체가 지닌 동일성의 정치 너머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공한다.